



『성폭력특별법』 제정 숙원풀었다

“활발한 사회참여 고용차별 위법판정등 큰 진전” 평가



일시: 1993년 12월 13일 (월)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소강당)

93년은 여성단체들 공동의 숙원사항이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여성의 사회참여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던 한해였다.

또한 연초 임명됐던 세명의 여성장관이 결국 12월 개각에서 두명으로 축소되는 등 여성의 공직진출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서울

대조교 성희롱사건이 소송으로 확산되는 등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기도 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2년에 걸친 여성계의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이 결실을 보게 됐다.

그러나 여성계는 이 법안에서 최고죄가 극히 부분적으로만 폐지되는 등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정신대문제 UN보고관 파견결정 성과 파출소장 동장 지점장등 첫진출 돈보여

어 내년에도 특별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여성계의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1년 6개월 동안 준비해오던 성폭력위기센터가 지난 14일 문을 열고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해 24시간 운영되기 시작했다.

정신대문제 유엔 인권 위원회에 한국의 정신대문제를 줄곧 제기해온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8월 제네바에서 유엔이 정신대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 파견을 결정하기까지 큰 역할을 했으며 이 공로로 李効再 尹貞玉 정대협 공동대표가 9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는 올해의 여성상을 공동수상하기도 했다.

여성의 공직진출 초 金泳三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사회부 환경처 정무제2장관에 3명의 여성장관을 임용해 여성의 공직진출 폭이 넓어지는 듯 했으나 잦은

구설수와 행정능력의 부족으로 12월 개각에서 결국 보사부 환경처장관이 도중 하차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93년은 첫 여성파출소장, 첫 여성동장, 첫 여성형사판장, 첫 국세청 여성사무관, 첫 여성특허심판관, 첫 여성지점장, 첫 대기업 여성이사가 등장해 각 부문에 대한 여성들의 도전이 두드러졌던 한해였다.

여성고용 지난 7월 노동부는 상시고용인 3백인이상의 기업이 성차별적인 사규등을 고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여성고용확장을 위한 제도적인

93년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성폭력대처등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직장내 성희롱문제의 여론화 등 새로운 문제제기가 있었던 한해였다.

개선이 점차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9월 前한국통신전화교환원 金永姬씨 (54)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여성전용직종이라는 이유로 정년에 남녀차별을 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낸 것도 올해 여성계가 거

룬 수확중의 하나다.

여성국제활동 지난 4월 29일 우리나라가 유엔 여성사업의 핵심기구인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위원국으로 피선돼 국제사회에서 한 몫을 담당하기 시작했으며 95년 북경에서 열릴 세계여성대회를 앞두고 여성단체들은 7월 「세계여성회의 준비를 위한 비정부기구 위원회 준비모임」을 만들어 11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태지역 NGO 회의에 참석하는 등 준비가 활발하다.

이밖에 지난 9월 「남녀평등한 세계개혁을 위한 여성단체모임」이 만들어져 배우자간 증여세 상속세 폐지운동에 나선 것과 지난 8월 서울대 조교의 교수에 의한 성희롱 폭로로 시작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은 93년 들어 새롭게 제기되고 주목을 끈 여성계 활동중의 하나였다.

(金熹暎)